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현수* · 정혜원**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2학년 패널의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유형은 ‘무비행집단’, ‘증가-감소 집단’, ‘지속증가집단’의 3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지지하지 않은 집단과 지지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와 부모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 요인 중에서는 선생님애착이 낮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학업 적응은 사이버 언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성별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셋째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과 감소를 살펴보기 위해 변화집단 중에서 ‘증가-감소 집단’과 ‘지속 증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3차년도와 5차년도에 전년 대비 부정적 자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3차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1차년도의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년 대비 2차년도 외모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이 지속되는 ‘지속 증가 집단’보다 ‘증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 요인 중에서 선생님 애착은 4차년도에서만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업 적응은 여러 시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경찰청 수사국 경위, 사회학 박사, 제1저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교신저자, womenj@hanmail.net

I. 서 론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했다. 현재의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혁명의 소용돌이 안에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인간의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를 희석시키고 새로운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과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및 피해 경험율은 전체 응답자 7,408명의 26%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이 최근 6개월 이내 사이버폭력 피해 또는 피해를 경험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와 피해가 한국의 일상 속에 침투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 가운데 가장 큰 피해와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으로 학생 15.1%, 성인 15.3%가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사이버 언어폭력은 사이버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전문가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비행의 유형으로 독립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신민정, 강명주, 정익중, 2014).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욕설과 비방의 무질서가 방치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들이 더 심각해질 위험이 크며, 과거에 비해 사이버 언어폭력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이나 대책에 관한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지만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이버 언어폭력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종단자료를 활용할 경우, 행위자의 성장단계별로 상태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달과정으로 중심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유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종단적 분석은 한국 청소년들의 사이버 언어폭력경험의 변화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언어폭력방지를 위한 개입프로그램과 실행에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사이버폭력의 개념이나 유형이 학자마다 차이가 있듯이,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해서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성식과 황지영(2008)은 사이버 언어폭력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메신저, 이메일, 쪽지 등에서 상대방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이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게시판 도배 및 성희롱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김현진 외(2014)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폭력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공간에서 남에게 욕설, 헐뜯 등을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은호(2017)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해외 문헌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뜻하는 말로 자주 언급되는 용어로 플레이밍(Flaming)을 자주 사용한다(황지영, 2007). 플레이밍이란 컴퓨터의 하위문화인 해커로부터 파생되었다. 이러한 플레이밍도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다른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보다 컴퓨터상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는 행위(Kiesler, Siegel & McGuire, 1984), 대화방에서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거친 표현, 불경스러운 말, 심지어 환희에 대한 감정의 표현, 컴퓨터상에서 미친 듯 한 표현 그리고 악담 등의 과도한 표출, 강한 감정의 표현, 또는 적의의 표현 등 다양하게 플레이밍은 정의되어 왔다(황지영, 2007 재인용). 국내외의 다양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정의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Cyber Verbal Violence)을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과 적대감 표출로 한정하여 협소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과 적대감 표출이 사이버 언어폭력이라면, 이는 일종의 비행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이버 언어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이외에 전통적인 비행이론에서 강조되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존의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이론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라온 환경요인과 개인 성향 등의 요인들을 강조해왔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한국의 사이버 비행의 원인으로 검증되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집단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가장 큰 환경적 접촉을 하는 학교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개인 특성은 사이버 언어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민정, 강명주와 정익중(2013)은 남학생의 언어폭력가해경험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아름(2014)에 의하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가해 경험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정기와 우형진의 연구(2010)에 의하면 사이버 폭력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의 의도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Jing과 동료들(2012)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괴롭힘과 전통적인 괴롭힘을 잠재계층분석을 해 본 결과 모든 유형의 괴롭힘이 남학생 10.5%, 여학생 4.0%로 남학생이 여학생들에 비해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언어/사회적 괴롭힘의 경우에는 남학생 29.3%, 여학생 29.4%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성별에 따른 사이버 언어폭력 변화유형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비행과 청소년의 개인 특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자기통제력, 스트레스와 같은 긴장, 부정적 자아 등이 사이버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 낮은 자기통제력은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Higgins, 2005; Malin & Fowers, 2009).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기에 형성되고, 한번 형성된 자기통제력의 수준으로 거의 일생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특히 낮은 자기통제력은 순간적인 만족과 충동성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성식(2005)연구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자신의 사이버 비행으로 재미와 쾌락을 얻을 경우 사이버 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수홍(2006)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오프라인에서의 지위비행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폭언 및 허위정보의 유포 등의 컴퓨터 관련 일탈행위에도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충동성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결과들을 보면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긴장이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은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Agnew, 1992).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은 현실에서의 비행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정혜원(2010)의 연구에 의하면 성적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이버 비행을 시작하고 사이버 비행을 벗어나는 속도도 느리게 진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이 높고 이를 통해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시기에 자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자아의 형성은 비행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이시연, 2014). 또한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긴장으로 인해 나타난 분노와 좌절감이 사이버 비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Patchin & Hinduja, 2011). Taylor와 Todd(1995)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인 요인인 자신감과 능력은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다. 자신감의 결여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자아를 청소년기에 형성할 경우 오프라인의 비행뿐만 아니라 사이버 언어폭력 등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해외에서는 교사요인에 관심을 두고 학교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다(Beran & Li, 2008; Hinduja & Patchin, 2008; 신민정 외, 2014 재인용). 이 연구에서도 사이버 언어폭력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학교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사이버비행이나 언어폭력에 영향을 나타냈던 학업부적응과 교사애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윤영민(2000)은 학업 부적응, 교사애착 등과 같은 현실에서의 긴장이나 역할 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정혜원(2009)은 교육이나 직업에 대하나 열망이 강할수록 사이버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사이버공간에서 비행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성식(2009)의 연구에서도 일상긴장이 현실비행보다 사이버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본다면 학업부적응이나 교사애착 등과 같은 학교에서의 부적응문제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전, 지속, 중단 등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자료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가 시행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초등패널)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가 시행된 같은 기관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가 있다. 이들 종단적 자료 중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사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시의적인 경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는 사이버 비행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기통제 관련 문항이 없고, 몇몇 문항들은 매년 조사되지 않고 2년마다 조사된 자료이므로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시기적 영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다. 이에 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사이버 비행을 설명하는 문항이 매년 조사되어,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적 자료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패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 조사하였다. 표집방법은 패널조사가 시작한 2004년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이경상, 안선영, 2009). 1차년도에는 2,84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표본 이탈(attrition)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2,26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2. 변인의 측정

1) 사이버 언어폭력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대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 유포, 욕설이나 비방, 인신공격 등과 같은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 종속변인인 사이버 언어폭력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인터넷게시판 등에 고의로 거짓내용을 퍼뜨리기’와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로 구성하였다. 이 두 문항은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전혀 없다’와 ‘있다’로 측정하였다. 각 측정시기마다 두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이 ‘있음’으로 재부호화하였고, 두 문항 모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없음’으로 재부호화하였다.

2) 개인 요인

개인 요인 중 자기통제는 1차년도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와 같이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해석상 편의를 위해 역부호화하였다. 자기통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42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적 자아의 신뢰도 계수 1차년도 .763, 2차년도 .808, 3차년도 .818, 4차년도 .800, 그리고 5차년도 .834로 나타났다.

부모 스트레스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 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807, 2차년도 .851, 3차년도 .888, 4차년도 .881, 그리고 5차년도 .895로 나타났다.

공부 스트레스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부모 스트레스와 같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공부 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833, 2차년도 .853, 3차년도 .843, 4차년도 .833, 그리고 5차년도 .835로 나타났다.

외모 스트레스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부모 스트레스와 같이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723, 2차년도 .751, 3차년도 .755, 4차년도 .768, 그리고 5차년도 .761로 나타났다.

3) 학교 요인

학교 요인 중 선생님 애착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그리고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와 같이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선생님 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553, 2차년도 .641, 3차년도 .668, 4차년도 .716, 그리고 5차년도 .745로 나타났다.

학업 적응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과목별 반 성적 정도를 주관적으로 응답하는 문항으로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과 같이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못하는 수준’부터 ‘매우 잘하는 수준’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업 적응의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687, 2차년도 .745, 3차년도 .767, 4차년도 .723, 그리고 5차년도 .746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이 연구는 두 과정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정은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이 시간에 따라 발생, 지속, 증가, 감소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몇몇의 유형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음 과정으로는 각 사이버 언어폭력 변화유형들의 차이를 이 연구에서 가정한 요인들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사이버 언어폭력 변화유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으로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 분석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사한 변화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몇몇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익중, 2007).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은 우선 변화집단의 수를 통계적으로 찾고, 시간에 따른 변화집단의 궤적의 형태를 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체 집단 내에서 다양한 변화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Nagin, 2005). 즉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이 변화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은 SAS 프로그램의 PROC TRAJ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 중단 등의 변화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각 시기별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따라서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은 Logit 모형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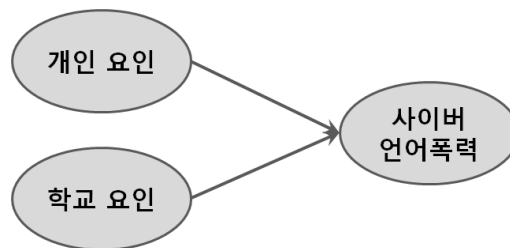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다음으로 몇몇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변화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변화집단을 재부호화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 지속, 중단 등 변화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본다. 변화집단은 대비되는 변화유형을 보이는 2집단으로 재부호화하고, 이들 변화집단 간의 특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 독립변인들 중, 자기통제는 일반이론에서 한번 형성된 자기통제의 수준은 시간이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안정성을 주장하였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따라서 자기통제는 1차년도와 자기통제의 수준만 분석에 사용한다. 이외 다른 독립변인은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하는 시간 가변 변인(time varying variable)이므로 각 시기별 독립변수를 모두 분석에 사용한다. 그런데 각 시기별 독립변인 값을 분석에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특정 시기의 변수값은 이전의 변수값에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결과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자기상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년도의 독립변인 값은 그대로 분석에 이용하고, 2차년도 이후의 변인값은 전년도 대비 변화한 값으로 대체하였다. 성별은 통제변인으로 분석하여, 성별에 따른 독립변인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 집단 추정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인터넷게시판 등에 고의로 거짓내용을 퍼뜨리기’는 1차년도에 73명이었고, 2차년도에 148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3차년도에는 122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257명이었고, 3차년도(398명)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4차년도에는 386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334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전의 두 언어폭력 항목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경험한 응답자는 1차년도에 303명이었고, 3차년도(450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4차년도에는 41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5차년도에는 357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1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기술통계

항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터넷게시판 등에 고의로 거짓내용을 퍼뜨리기	경험빈도	73	148	122	73	47
	경험비율	(3.2)	(6.5)	(5.4)	(3.2)	(2.1)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	경험빈도	257	356	398	386	334
	경험비율	(11.3)	(15.7)	(17.6)	(17.0)	(14.7)
하나 이상 경험한 빈도 및 비율	경험빈도	303	429	450	415	357
	경험비율	(13.4)	(18.9)	(19.9)	(18.3)	(15.7)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변화의 집단 수를 정하기 위해 변화집단 수에 따른 상대적 적합도와 집단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화집단의 수를 정하는 기준은 BIC 값과 AIC 값을 기준으로 하여, 절대값이 가장 적은 집단 수를 정하게 된다. 변화집단의 수를 1개 집단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BIC와 AIC는 각각 -5,218.10과 -5,210.77이었다. 변화집단의 수를 증가시켜 3집단인 경우까지 BIC와 AIC 값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4집단 이상을 가정한 경우에는 BIC와 AIC 값이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변화집단의 수는 3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변화집단 수의 상대적 적합도 및 집단의 비율

집단수	BIC	A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1집단	-5,218.10	-5,210.77	100.00				
2집단	-4,933.85	-4,915.51	77.08	22.92			
3집단	-4,931.36	-4,902.02	68.87	28.84	2.29		
4집단	-4,939.15	-4,898.80	33.33	61.14	3.09	2.44	
5집단	-4,950.28	-4,898.93	28.82	66.88	1.11	1.00	2.19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집단을 3집단으로 분류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유형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첫 번째 집단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사이버 언어폭력을 거의 저지르지 않는 집단으로 ‘무비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77.6% (1,759명)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집단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이 증가하였지만, 4차년도 이후에는 감소하는 집단으로 ‘증가-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15.6%(353명)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집단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집단으로 ‘지속 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6.8% (155명)가 속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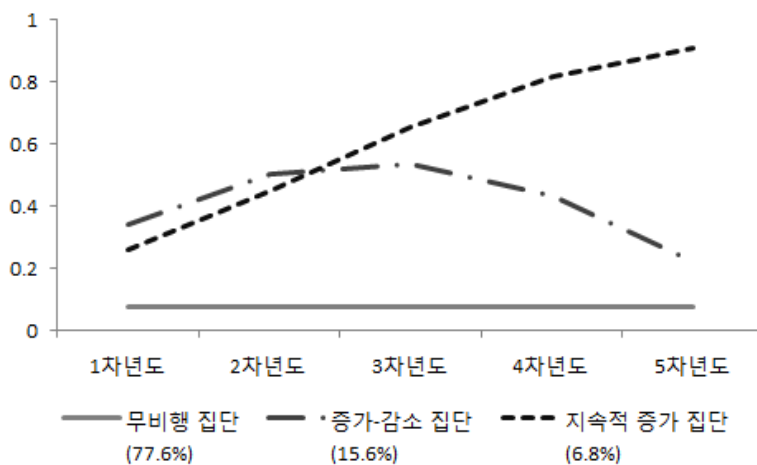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유형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집단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추정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무비행 집단’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사이버 언어폭력을 거의 저지르지 않아 시간에 따른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절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시간에 따른 증가나 감소의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증가-감소 집단’은 절편, 선형, 2차 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지속적인 증가나 감

소의 일정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고, 시간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지속 증가 집단’은 절편과 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집단으로 시간에 따라 사이버 언어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형 함수의 추정값이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변화집단의 추정통계량

집단 구분	함수	추정값	표준오차	T값
무비행	절편(Intercept)	-2.49	.09	-26.38***
증가-감소	절편(Intercept)	-1.87	.31	-5.96***
	선형(Linear)	1.49	.31	4.87***
	2차(Quadratic)	-.27	.06	-4.38***
지속 증가	절편(Intercept)	-1.87	.50	-3.72***
	선형(Linear)	.84	.24	3.50***

* $p < .05$, ** $p < .01$, *** $p < .001$

2.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개인적 특징으로 자기통제는 평균 3.78이고, 표준편차는 .68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는 1차년도에 평균이 2.19이고, 3차년도(2.3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3차년도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독립변인의 기술통계

항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자기통제	평균	3.78				
	표준편차	.68				
부정적 자아	평균	2.19	2.25	2.35	2.35	2.35
	표준편차	.90	.91	.91	.87	.88

항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부모 스트레스	평균	1.84	1.98	2.20	2.52	2.55
	표준편차	.90	.94	.97	.100	1.02
공부 스트레스	평균	2.18	2.32	2.55	2.96	2.91
	표준편차	.98	1.00	.98	.97	.95
외모 스트레스	평균	1.88	1.99	2.22	2.29	2.30
	표준편차	.91	.95	.97	.97	.95
선생님 애착	평균	2.73	2.70	2.67	2.64	2.56
	표준편차	.89	.90	.85	.87	.85
학업 적응	평균	3.42	3.50	3.45	3.13	3.16
	표준편차	.64	.69	.67	.75	.77

부모 스트레스는 1차년도에 1.84이고, 2차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3차년도와 4차년도에 전년 대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진학에 부모가 가지는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부 스트레스는 1차년도에 2.18이었고, 2차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4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점은 부모 스트레스와 같이 중학교 진학이라는 변화가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생님 애착은 1차년도에 2.73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업적응은 1차년도에 3.42이었고, 2차년도에는 3.50으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3차년도에는 3.44로 낮아졌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앞서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변화유형으로 분류한 세 집단 중에서 ‘무비행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재분류하고, ‘증가-감소 집단’과 ‘지속 증가 집단’을 또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가-감소 집단’과 ‘지속 증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집단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변화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4차년도에는 사이버 언어폭력 가능성의 감소와 증가라는 상반된 변화유형을 가지고 있어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집단(‘무비행 집단’은 0으로 재부호화)과 저지른 집단(‘증가감소 집단’과 ‘지속 증가 집단’은 1로 재부호화)과 같이 두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개인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1차년도 자기통제는 집단 간 차이에 부적(negative)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 집단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부정적 자이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집단 간 차이에 정적(positive)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차년도에 부정적 자아가 높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4차년도까지 전년 대비 부정적 자아가 높아질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부모 스트레스가 정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차년도의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전년 대비 부모 스트레스가 더 높아질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한 가능성이 높았다. 공부 스트레스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모 스트레스는 1차년도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1차년도에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한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 요인 중 먼저 선생님 애착에 대해 살펴보면,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4차년도 선생님 애착이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1차년도에 선생님 애착이 낮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고, 2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선생님 애착이 낮아질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학업 적응은 사이버 언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성별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지금까지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험유무에 따른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은 공부 스트레스나 학업 적응과 같이 학업으로 인한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5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무비행 집단 = 0 증가감소 집단, 지속 증가 집단 = 1		
		계수	Wald	Exp(B)
개인 요인	1차년도 자기통제	-.084	30.972	.919 ***
	1차년도 부정적 자아	.154	15.676	1.166 ***
	2차년도 부정적 자아(전년 대비)	.115	9.912	1.122 **
	3차년도 부정적 자아(전년 대비)	.084	6.404	1.088 *
	4차년도 부정적 자아(전년 대비)	.064	4.422	1.066 *
	5차년도 부정적 자아(전년 대비)	.025	1.053	1.026
	1차년도 부모 스트레스	.116	8.624	1.123 **
	2차년도 부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115	8.662	1.122 **
	3차년도 부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121	11.512	1.128 **
	4차년도 부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108	12.905	1.114 ***
	5차년도 부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84	11.997	1.088 **
	1차년도 공부 스트레스	.037	1.373	1.038
	2차년도 공부 스트레스(전년 대비)	.015	.228	1.015
	3차년도 공부 스트레스(전년 대비)	.008	.077	1.008
	4차년도 공부 스트레스(전년 대비)	.002	.006	1.002
	5차년도 공부 스트레스(전년 대비)	-.019	.835	.981
	1차년도 외모 스트레스	.089	6.319	1.093 *
	2차년도 외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65	3.409	1.067
	3차년도 외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19	.327	1.019
	4차년도 외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03	.013	.997
	5차년도 외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03	.016	1.003 ***
학교 요인	1차년도 선생님 애착	-.097	6.318	.908 *
	2차년도 선생님 애착(전년 대비)	-.102	8.19	.903 **
	3차년도 선생님 애착(전년 대비)	-.061	3.505	.940
	4차년도 선생님 애착(전년 대비)	-.081	7.444	.922 **
	5차년도 선생님 애착(전년 대비)	-.015	.366	.985
	1차년도 학업 적응	.031	1.214	1.031
	2차년도 학업 적응(전년 대비)	-.003	.008	.997
	3차년도 학업 적응(전년 대비)	.009	.091	1.010
	4차년도 학업 적응(전년 대비)	-.038	2.141	.963
	5차년도 학업 적응(전년 대비)	.013	.287	1.013
통제 요인	성별(남자 청소년=0, 여자 청소년=1)	-.084	38.697	.448
-2 Log likelihood		2,025.830		
Chi-Square(df)		291.601(32)		
Cox & Snell R ²		.125		

* $p < .05$, ** $p < .01$, *** $p < .001$

사이버 비행의 지속과 감소를 살펴보기 위해 변화집단 중에서 ‘증가-감소 집단’과 ‘지속 증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 요인 중 1차년도 자기통제는 집단 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즉 사이버 언어폭력의 ‘증가-감소 집단’과 ‘지속 증가 집단’ 간의 자기통제의 수준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정적 자아는 3차년도와 5차년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3차년도와 5차년도에 전년 대비 부정적 자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3차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부모 스트레스와 공부 스트레스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않았다. 외모 스트레스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차년도의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년 대비 2차년도 외모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이 지속되는 ‘지속 증가 집단’보다 ‘증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 요인 요인 중에서 선생님 애착은 4차년도에서만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전년 대비 4차년도의 선생님 애착이 감소할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시기적으로 4차년도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학교에 진학한 시기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학업 적응은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차년도에 학업 적응이 낮을수록, 전년 대비 2차년도와 4차년도의 학업 적응이 낮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더욱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학업 적응은 다른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이 시기적으로 대부분 1차년도 혹은 2차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거나(외모 스트레스), 3차년도 이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정적 자아, 선생님 애착)이었다. 이에 비해 학업 적응은 여러 시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6

사이버 비행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증가-감소 집단 = 0 지속 증가 집단 = 1		
		계수	Wald	Exp(B)
개인 요인	1차년도 자기통제	.029	1.027	1.030
	1차년도 부정적 자아	.131	2.979	1.140
	2차년도 부정적 자아(전년 대비)	.092	1.576	1.096
	3차년도 부정적 자아(전년 대비)	.136	4.451	1.145 *
	4차년도 부정적 자아(전년 대비)	.113	3.488	1.120
	5차년도 부정적 자아(전년 대비)	.116	5.993	1.123 *
	1차년도 부모 스트레스	.059	.740	1.061
	2차년도 부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100	1.922	1.105
	3차년도 부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45	.423	.956
	4차년도 부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29	.264	1.030
	5차년도 부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88	3.716	1.092
	1차년도 공부 스트레스	-.025	.180	.975
	2차년도 공부 스트레스(전년 대비)	-.020	.102	.980
	3차년도 공부 스트레스(전년 대비)	.013	.051	1.013
	4차년도 공부 스트레스(전년 대비)	.013	.077	1.013
	5차년도 공부 스트레스(전년 대비)	-.004	.011	.996
	1차년도 외모 스트레스	-.165	6.365	.848 *
	2차년도 외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151	4.757	.860 *
	3차년도 외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31	.250	.969
	4차년도 외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78	1.903	.925
	5차년도 외모 스트레스(전년 대비)	.000	.000	1.000
학교 요인	1차년도 선생님 애착	-.039	.302	.962
	2차년도 선생님 애착(전년 대비)	-.069	.997	.933
	3차년도 선생님 애착(전년 대비)	-.040	.410	.960
	4차년도 선생님 애착(전년 대비)	-.179	8.436	.836 **
	5차년도 선생님 애착(전년 대비)	-.073	2.080	.929
	1차년도 학업 적응	-.120	4.489	.887 *
	2차년도 학업 적응(전년 대비)	-.130	4.183	.878 *
	3차년도 학업 적응(전년 대비)	-.052	.745	.949
	4차년도 학업 적응(전년 대비)	-.100	4.124	.905 *
	5차년도 학업 적응(전년 대비)	-.027	.347	.973
통제 요인	성별(남자 청소년=0, 여자 청소년=1)	-.629	5.545	.533 *
-2 Log likelihood		535.954		
Chi-Square(df)		60.760(32)		
Cox & Snell R ²		.118		

* $p < .05$, ** $p < .01$, *** $p < .001$

V.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유형을 구분하고,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개인요인과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2학년 패널의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집단은 ‘무비행집단’, ‘증가-감소 집단’, ‘지속증가집단’ 3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무비행집단’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사이버 언어폭력을 거의 저지르지 않는 집단으로 77.6%(1,759명)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감소 집단’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이 증가하였지만, 4차년도 이후에는 감소하는 집단으로 15.6%(353명)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증가집단’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집단으로 가장 적은 6.8%(155명)가 속해 있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15.6%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중기인 15~16세에 가장 정점에 이르다가 청소년후기로 갈수록 감소한다는 서구의 오프라인 청소년비행연구결과와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8%의 경우에는 계속 사이버 언어폭력을 지속하는 집단으로써 이 집단은 서구의 오프라인 청소년비행연구결과와는 다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Moffitt(1993)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비행을 계속하는 생애지속적 비행자(life-course persistent delinquents)와 성인이 되면 비행을 지속하지 않은 한정된 비행자(adolescent-limited delinquents)가 있다고 한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증가집단인 6.8%는 향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이버 언어폭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언어폭력방지를 위한 개입프로그램은 이 집단에 주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8%의 사이버 언어폭력 지속증가 집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앞서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변화유형으로 분류한 세 집단 중에서 ‘무비행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재분류하고, ‘증가-감소 집단’과 ‘지속증가 집단’을 또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집단 중에서 ‘증가-감소 집

단'과 '지속 증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첫째,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집단과 저지른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와 부모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 요인 중에서는 선생님애착이 낮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고, 학업 적응은 사이버 언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성별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교육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어울림프로그램을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내용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험유무에 따른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은 공부 스트레스나 학업 적응과 같이 학업으로 인한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험유무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만이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학교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둘째, 사이버 비행의 지속과 감소를 살펴보기 위해 변화집단 중에서 '증가-감소 집단'과 '지속 증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요인 중 1차년도 자기통제는 집단 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즉 사이버 언어폭력의 '증가-감소 집단'과 '지속 증가 집단' 간의 자기통제의 수준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은 성, 문화, 연령, 환경에 의한 모든 변화를 설명하고 "모든 범죄를 어느 시점에서나 설명하고, 국가에 의하여 제재되지 않는 많은 형태의 행위까지도 설명하고, 개인수준의 범죄원인인 모든 의도도 설명한다고 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그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이후의 감소 혹은 지속증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는 3차년도와 5차년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3차년도와 5차년도에 전년 대비 부정적 자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3차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부모 스트레스와 공부 스트레스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않았다. 외모 스트레스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차년도의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년 대비 2차년도 외모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이 지속되는 ‘지속 증가 집단’보다 ‘증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험여부에 개인의 특성의 영향력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시작하는 것에는 개인의 특성이 영향이 없었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에 진입한 이후 감소와 증가에는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요인 중에서 선생님 애착은 4차년도에서만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전년 대비 4차년도의 선생님 애착이 감소할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시기적으로 4차년도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학교에 진학한 시기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학업 적응은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차년도에 학업 적응이 낮을수록, 전년 대비 2차년도와 4차년도의 학업 적응이 낮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더욱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학업 적응은 다른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이 시기적으로 대부분 1차년도 혹은 2차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거나(외모 스트레스), 3차년도 이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정적 자아, 선생님 애착)이었다. 이에 비해 학업 적응은 여러 시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진입할 때는 학교 요인이 중요하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을 지속하고 증가하는 것은 개인적 요인과 학교 요인이 복합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을 포함한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이버 언어폭력의 변화 유형과 관련 요인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진, 유형근, 조용선 (2014).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45-65.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신민정, 강명주, 정익중 (2014). 초등학생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혼합연구. **학교사회복지**, 29, 463-510.
- 윤영민 (2000). 청소년 인터넷이용: 분석모형의 개발. **정보와 사회**, 2, 133-153.
- 이경상, 안선영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VII: 1-6차년도 조사개요보고서**(연구보고 09-R0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성식 (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 77-108.
- 이성식 (2009).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비행에 있어서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사용시간의 영향 작용. **형사정책연구**, 77, 95-115.
- 이성식, 황지영 (2008). 인터넷사이트 집합적 효율성과 사이버언어폭력. **형사정책연구**, 73, 167-189.
- 이시연 (2014).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구조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759-771.
- 이아름 (2014).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 언어폭력성, 사회성이 사이버불링경험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호 (2017).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기, 우형진 (2010).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 인식, 연령,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1), 215-253.
- 정익중 (2007).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혜원 (2009). 사이버비행 지속에 미치는 영향: 사회유대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6(4), 97-112.
- 정혜원 (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

- 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263-288.
- 황지영 (2008). *인터넷게시판상의 언어폭력의 설명요인에 관한 경험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보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Beran, T., & Li, Q.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1(2), 16-33.
- Gottfredson, M. R., & Hirschi, T. A. (1990).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2), 129-156.
- Higgins, G. E. (2005). Can low self-control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oftware piracy problem?. *Deviant Behavior*, 26, 1-24.
- Jing, W., Iannotti, R. J., & Jeremy, W. L. (2012). Patterns of adolescent bullying behaviors: Physical, verbal, exclusion, rumor, and cyber.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0(4), 521-534.
- Kiesler, S., Siegel, J., & McGuire, T. 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123-1134.
- Malin, J., & Fowers, B. (2009). Adolescent self-control and music and movie pir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 718-722.
- Moffi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5-701.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tchin, J. W., & Hinduja, S. (2011). Cyberbullying and self-esteem. *Journal of School Health*, 80(12), 614-621.
- Taylor, S., & Todd, P. A. (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 *Information System Research*, 4(1), 85-92.

ABSTRACT

The factors affecting juvenile cyber verbal violence among adolescents

Park, Hyunsoo* · Jung, Hyew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changes in cyber verbal violence among adolescent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 using the 1st to 5th year data of the middle school 2nd grade panel of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ypes of cyber verbal violence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non-delinquent type”, “increasing-decreasing type”, and “consistently increasing type”. Secondly, the three groups were re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group that does not commit cyber verbal violence and the group that commits cyber verbal violenc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self-control, the more likely was it for a subject to be in the group that commits cyber verbal violence. Additionally, there is a bigger chance of engaging in cyber verbal violence if you are a person of high negative self esteem. In particular, parental stress was shown to statistically affect cyber verbal viole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ggested.

Key Words: adolescent, cyber verbal violence, semi-parametric group based model, korean youth panel survey

투고일: 2018. 3. 12, 심사일: 2018. 3. 27, 심사완료일: 2018. 4. 20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